

지역 경제 '봄' 오나...소상공인 경기전망 '봄별'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지수 4개월 만에 개선...전국 평균 상회 제조업 12.6p ↑·비제조업 6.3p ↑ ...내수판매·경상이익 전망 좋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신학기로 인한 내수 경기 반등 조짐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2월 13일~19일 광주전남 중소기업 2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3월 경기전망'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5.8로 전달(76.2)보다 9.6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한 수치다. 지역 중소기업의 SBHI는 지난해 10월 84.3을 기록한 뒤 11월 81.3→12월 78.8→1월 77.3→2월

73.3로 하락세였으나 이달 반등에 성공했다. 지역 기업들의 이달 SBHI는 전국 평균인 81.8보다도 4p 높았다. 광주는 전달(70.1) 대비 9.5p 상승한 79.6로 전망됐고, 전남은 전달(82.1) 대비 9.4p 상승한 91.5였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신학기 기대감이 더해졌다고 하지만 작년 3월 SBHI가 80.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경기 회복실적 속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

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기전망이 급등했다. 이달 지역 제조업 SBHI는 90.0로 전달(77.4) 대비 12.6p 올랐고, 비제조업도 81.0로 전달(74.7) 대비 6.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변동 항목에서도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판매는 전달 73.3에서 84.7로 11.4p 올랐고, 경상이익(80.2·10p ↑), 수출(89.7·7.4p ↑), 자금사정(77.2·6.3 ↑) 등 모두 상승했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만 전달 91.8에서 92.1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지난해 지역기업들은 주된 경영여로는 인건비 상승(58.1%)이었다. 뒤이어 내수부진(47.4%), 고금리(33.5%)가 뒤를 이었다. 지역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도 상승했다. 올

1월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은 73.0%로 전달(71.9%)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72.3%로 전달(71.6%) 대비 0.7%p 상승했고, 전남은 전달(72.3%) 대비 1.4%p 상승한 73.7%였다. 봄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경기전망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절 대목을 지난 전통시장은 약화됐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소상공인의 3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전달(65)보다 13.8p 증가한 78.8, 전남은 66.5로 전달(59.9)보다 5.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 평균(74.6)을 상회 했지만, 전남은 평균 이하였다.

전국을 기준으로 교육서비스업 BSI가 90.6으로 11.2p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리업(27.7p), 개인서비스업(12.5p), 음식점업(11.2p) 등 대부분 업종이 올랐고 제조업만 유일하게 11.2p 내렸다. 다만 전통시장 경기전망은 좋지 않았다. 광주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3월 전망 경기지수는 50.0로 전달(64.3)에 견줘 14.3p 감소했고, 전남도 62.5로 전달(75.7)보다 13.2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전망 BSI가 전달보다 12.3p 감소한 61.9를 기록한 가운데, 축산물 BSI가 49.4로 60.7p나 급락한 것을 비롯해 수산물(-45.5p), 농산물(-35.5p), 가공식품(-16.9p) 등이 하락했고 의류·신발(24.3p), 가정용품(4.4p) 등은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원자력 발전 인적·기술 자원 업계 최고”

비즈 & 피플 박현희 ㈜에스이 대표이사

2010년 광주서 창업, 유지 보수·특수기계 장비 개발...특허 15개 UAE 등 해외까지 진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미래 먹거리 박차”

“경험에 기반을 둔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최고의 원자력 발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1일 만난 박현희(사진) ㈜에스이 대표이사는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에스이는 국내 몇 안되는 원자력 발전 관련 전문기업이다. 고도화된 기술과 현장 경험을 요하는 만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국내에는 5개 정도의 기업이 경쟁 중인데, 그 중 ㈜에스이는 광주에 기반을 둔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에스이의 사업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 기계 설비 정비 사업이다.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에서 부품의 교체·철거가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에 투입돼 이를 해결한다.

“원자력 발전소 정비는 전문 기술과 전문 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에스이의 인적·기술 자원은 업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에스이는 단순히 유지 보수하는 사업 외에도 이를 위한 특수기계 장비도 직접 개발, 제작



한다. 총 34개 장비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모두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것들이다. 대부분 ㈜에스이가 직접 개발한 장비들로, 보유한 특허만 해도 15개에 달한다. ㈜에스이의 기술력은 국내 4곳의 원자력발전

소는 물론 UAE 등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에스이는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업력은 길지 않지만, 박현희 대표가 가진 기술력과 영업 능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1988년 즈음 원자력 관련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유지 보수 업무는 대부분 해외 기업이 도맡았고 국내 기업들은 자체 공급에 그쳤는데, 차츰 국내 기업들도 기술력을 올라 부품 가공, 납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기술팀장을 맡아 원자력 유지 보수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 개발에 매진했다. 이때 해외 원서를 직접 구해와 연구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이후 정든 회사를 나와 박 대표는 ㈜에스이를 창립했다. 첫째 5명이던 직원은 20명까지 늘었고 지난해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명실상부 지역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에스이의 성공배경에는 결국 ‘기술력’이 있다고 박 대표는 자평했다. 대표 본인이 전문가이면서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R&D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에스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연구소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필요한 절단 장비 개발과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끝으로 “앞으로 목표는 후학양성과 지역사회 환원 두 가지다”며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은행 교복 후원 행사 1000만원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달 28일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열고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행사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방송인 이흥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복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추천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이번 교복 후원 및 후

원금 전달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는 지난 2016년 처음 진행돼 올해로 9번째 이어지고 있으며, 총 9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이흥렬이 참석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효성, 기술원장 부회장에 노기수 전 LG화학 사장 영입

효성은 3일 노기수(사진) 전 LG화학 사장을 효성기술원장 부회장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노기수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박사를 지낸 석유화학 분야 기술 전문가다.

노 부회장은 일본 미쓰이화학에서 연구책임자를 역임했으며, 이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LG화학에서 폴리올레핀연구부장, 고무특수수지사업부장, 기능수지사업부장, 재료사업부장, 중앙연구소장, CTO 등을 역임했다.

노 신임 부회장은 국내 화학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17년에는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효성은 PP(폴리프로필렌)를 비롯해 고분자, 전자재료, 에너지 및 디스플레이 관련 신소재 등 다양한 화학소재 분야에서 오랜 동안 쌓아온 노 부회장의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효성의 화학부문 사업, 미래 성장 사업 발굴 등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삼성 무선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 해외가 반했다

미세먼지 90% 처리·사용자 친화적 기능 호평 잇따라



삼성전자의 무선 스틱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 AI’(사진)가 해외에서 연이여 호평받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품 리뷰 전문매체인 ‘리뷰드닷컴’은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제트 AI를 최고의 무선청소기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를 90% 이상 말끔히 처리했다”고 강력한 흡입력에 대해 호평했다.

리뷰드닷컴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과 먼지 자동배출 시스템 등은 제품의 높은 가치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영국 IT 전문매체인 ‘테크레이더’가 호주 지역에서 발행한 현지 청소기 테스트 기사에서도 삼성 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무선 청소기가 최고의 제품으로 꼽혔다.

테크레이더는 흡입력과 내구성, 소음, 배터리 지속 시간, 사용 편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비스포크 제트 AI의 정정 스테

이션, 대용량 배터리, 우수한 흡입력, 세련된 디자인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테크 매체 ‘와이어드’는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브러시 등 다채로운 액세서리, 바닥 재질 등을 인식해 스스로 흡입력을 조절하는 AI 기능 등에 대해 호평했다.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비스포크 제트 AI를 ‘애완동물 털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무선 스틱 청소기’로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8일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310와트(W)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2024년형 비스포크 제트 AI를 출시했다. ‘체인 코어’ 형태로 제작된 초경량 모터 구조를 적용하고 내부 핵심 부품의 구조를 효율화해 이전 제품보다 높은 흡입력을 구현한 제품이다.

특히 업그레이드된 ‘AI 모드 2.0’으로 먼지가 모이기 쉬운 마루 모퉁이를 청소하며 브러시를 밀착하면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여 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만땅’ 주유, 초과결제 주의

셀프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하는 경우 초과 결제되는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

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주유금액 승인이 새로 난 후 선결제가 취소되는 절차다.

그러나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접수

8일까지...400곳 4년간 2천만원씩

전남도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오는 8일까지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등에 4년간 2000만원씩을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다른 대도시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만 18~45세 이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4년간 최대 500만원, 청년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소재지 시·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국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전남에 정착하고 활동함으

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외에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자활 연계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학협력 패키지과정 운영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로또복권 (제110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12	13	19	33	40	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84,352,875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440,474	84
3	3개 숫자일치					1,341,202	3,347
4	4개 숫자일치					50,000	180,255
5	3개 숫자일치					5,000	2,734,683